

진안군, 자치법규 정비 총력

9개 조례·7개 규칙 일괄 폐지

진안군은 군민들에게 보다 명쾌한 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 변화를 신속하게 반영하기 위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지난 3월 30개 조례 및 69개 규칙의 전수조사에 따라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기초자료 수집을 마치고, 지난 6월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정비에 따른 일괄폐지조례안'을 공포하여 9개 조례, 7개 규칙을 일괄 폐지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치법규 일괄 정비에 본격 돌입했다.

이는 상위법령의 개정 및 행정변화 등에 따라 적용대상이 사라져 사문화(死文化)되었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규칙을 일괄 폐지하는 내용으로서 '진안군 소규모토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조례', '진안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등 유명무실한 조례 및 규칙 총 16건이 지난 6월말 일괄 폐지됐다.

또한 2015년 12월 이전 개정된 모든 조례·규칙 중 인용 법령제명 및 조항 불일치 사항, 상위법령 위임 반영, 상위법령 위반 사항, 법령의 근거 없는 규제 및 법령보다 강화된 규제의 개선 등을 비롯해 행정기관의 명칭 변경 반영 등을 위한 자치법규의 일괄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상위법령 개정 반영 등을 위한 일괄 개정조례·규칙안에는 총 150여개의 조례·규칙과 250여 조항의 개정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부서의 의견 수렴과 방침결정을 마치고 지난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 중에 있다.

일괄개정 조례·규칙안은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후 조례규칙심의회

를 거쳐 다음 달인 9월 진안군 의회에 제출, 빠르면 9월 15일 공포될 예정이다.

전형욱 기획실장은 "진안군은 지난 2009년 이후 대대적인 자치법규 일괄 개정을 하지 않아 409건의 조례·규칙 전체를 검토하는 데 적잖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지만, 기획실 주도하에 대규모 일괄개정을 추진하게 됐다"며 "자치법규는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으로 정비가 늦어지면 자치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끼칠 수 있어 법령 개정사항을 신속하고 명확하게 반영하고, 군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정비해 군민이 만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안군은 올 하반기 예정된 법제처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사업을 통해 2017년까지 자치법규 자체정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 열린다

오늘부터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서 개최

태권도진흥재단과 전라북도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무주군, 한국관광공사가 후원하는 2016 한·중 무술문화교류축제가 9일부터 오는 15일까지 무주 태권도원에서 개최된다.

이번 축제는 태권도를 중심으로 한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와 더불어 태권도원을 제대로 알린다는 취지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중국 현지 관광객들과 한국에서 유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 5천여 명을 비롯해 국내에서도 태권도인 등 5천여 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중국 현지에서 오는 관광객들은 세 팀으로 나뉘어 방문할 계획이며 그 일정에 맞춰 태권도와 유수를 비롯한 전통무용, 한류기수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중 문화공연이 열리는 첫 날인 10일에는 저녁 7시부터 개막식과 태권도시범, 익산 시립미술관 풍물단 공연과 우수시범, 변검공연, 방탄소년단이 함께 하는 K-POP 콘서트가 펼쳐지며 12일에는 태권도와 우수 시범, 전통공연, 변검공연, 그리고 EXID가 출연하는 K-POP 콘서트를 관람할 수 있다.

14일에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무술



시범과 문화공연을 비롯해 걸 그룹 스타라와 함께 하는 K-POP 콘서트를 즐길 수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2017 무주WTF 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앞두고 중화권에 태권도와 태권도원을 제대로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중국의 스포츠, 문화, 예술교류가 양국을 더욱 돈독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 태권도로 시작되는 한류 문화, 올해의 관광도시 무주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로컬블리스



장수군, 사과수확체험 신청 접수

장수군은 제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를 앞두고 오는 19일까지 사과수확체험 참여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오는 9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리는 10회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기간 2백30주를 대상으로 수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장수사과수확체험은 사과농장에서 직접 사과를 수확해 맛볼 수 있는 농촌체험 프로그램으로 체험비는 1주당 100,000원이며 인터넷(홈페이지 www.jangseufestival.com) 사전 접수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참여조건은 개인접수, 미취학아동 단체접수가 가능하며 1인 2주에 한해 참여할 수 있고 사과나무 1주의 사과를 모두 수확(최소 30kg보장)할 수 있다.

군 축제 관계자는 "사과수확체험은 '장수 한우랑사과랑 축제'에서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체험 프로그램으로 매년 인기를 더하고 있다"며 수확체험을 원하는 분들은 서둘러 접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한국 강의 날' 전북대회

만경강 물길에 시작되는 완주서 열린다

내일부터 12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일원서

제15회 한국강의 날 전북완주대회가 오는 10일부터 12일까지 전북 완주군 우석대학교·삼례문화예술촌 일원에서 열린다.

강, 그 이상의 가치'를 슬로건으로 내건 이번 강의 날 대회는 국내·외 환경단체와 NGO 활동가, 전문가, 지역주민 등 2000여명이 참여해 강포럼, 콘테스트, 키퍼런스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진다.

이번 강의 날 대회는 만경강 물길에 시작되는 완주를 중심으로 강의 역사와 문화·생태·환경적 가치를 체험 프로그램에 담아 청정 생태관광 완주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전북지역 하천의 가치와 그 속에 깃든 문화와 환경을 알릴 계획이다.

개막식은 10일 오후 6시 우석대 체육관에서 열리며, 10일 오후 1시 30분에는 '새만금사업, 지속가능 개발방향 모색 및 한국의 물 운동 방향성'에 대한 포럼이, 11일, 12일 양일에는 '하천 살리기 사례콘테스트'가 진행된다. 11일 오후 1시에는 '우리나라 치수의 역사와 문화, 낙동강 하굿둑 개발 추진현황' 등에 대한 의제 토크콘서트 등이 진행된다.

특히 완주군에서는 11일 오후 3시 20분, 삼례문화예술촌 세미나실에서 '제1회 만경강 생태포럼-만경강의 재발견'을 열고 지역 생태정책의 비전을 선포한다.

또한 만경강 자전거거터, 보트 탐사 프로그램, 만경강 사진전시

회 등 완주의 생태적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한국 강의 날 전북완주대회 조직위원회 김택천 위원장은 "청정 생태 관광 완주에서 강의 날 대회를 열게 되어 기쁘다"며, "이번 한국 강의 날 전북완주대회가 만경강을 중심으로 한 역사, 문화, 환경적 가치를 발견하고,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국내외 활동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강의 날 대회는 지난 2002년 경기도 양평대회를 시작으로 올해 열다섯번째 행사이며, 전북완주대회는 전북지역에서는 2006년 전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한국·전북·완주강 살리기네트워크와 완주군, 전라북도, 환경부가 후원한다. /완주=이종복 기자

진안보건소, 지역사회건강조사 실시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지역주민의 건강수준과 건강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오는 8월 16일부터 10월 말까지 관내 만 19세 이상 지역주민 900여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방법은 지역사회건강조사에 대

한 전문교육을 받은 조사원이 표본으로 선정된 가구를 방문해 가구원의 동의를 받은 후 전자조사표(노트북)를 이용하여 면접 조사한다.

특히 선정된 조사대상 가구는 먼저 우편물이 발송되고, 조사원 6명이 방문 조사하게 된다.

주요조사 내용으로는 주민의 건강상태와 유병상태, 건강생활습관, 의료이용, 삶의 질, 사회경제적 상태 등이다.

이승호 소장은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주민의 건강수준과 생활습관 및 의료이용 등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며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군 마을축제 여름한마당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 성황리 마쳐

제9회 진안군마을축제 여름한마당이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라는 주제로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정천 체련공원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기념식에는 7개 마을 주민, 이항로 군수, 출향인, 전국 마을만들기 활동가 등 1,000여명이 참석하였다.

특히 7개 마을의 1사촌 및 재배결연자인 (주)하림, 부산 사대부고흥동문화회, 아파트 부녀회 등 6개 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석하여 마을과 만남으로 마을과 도시의 화합과 교류의 장이 만들어졌다.

예년과 다르게 마을과 마을이 모여 거점축제로 개최된 이번 축제는 '마을과 도시, 삶을 나누다'라는 주제에 맞게 축제 참여마을들과 1사촌 등 각 마을의 도시 식구들이 모두 모여 기념행사와 함께 거점축제 후 각 마을로 가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또한 농촌마을을 체험하며 농업촌을 생각하고 도시와 농촌의 상생관계를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도록 마을축제가 만남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



제9회 진안군마을축제 여름한마당이 정천 체련공원에서 성황리 마쳤다.

는데 모든 행사를 집중시켰다.

특히 여름한마당을 시작으로 6월 저녁 진안고원시장에서는 한여름 밤의 제1탄 문화장터 '축제와 만남'이 지역주민, 학생들,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인 등이 참여하여 평소 같고 닭은 실력을 뽐내는 공연과 함께 손수 농사지은 농산물부터 먹거리 판매, 벼룩시장, 놀이 등 읍내가 들쭉이는 신

명나고 즐거운 축제의 밤을 선사했다. 신애숙 축제조직위원회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마을축제가 준비되어 있으니 시골 마을에 내려와 옛 고향의 정취도 느껴면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을축제 홈페이지(http://www.jinanjmaeil.kr) 및 연락처(063-433-5445) /진안=우태만 기자

시원한 쉼터에서 건강 챙기세요

황정수 무주군수, 무더위 쉼터 돌며 이야기꽃 피워

30도를 웃도는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무주군은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며 어르신들의 여름철 안전을 챙기고 있다.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이 설치된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와 경로당, 보건진료소 등을 활용해 어르신들이 한 낮의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체조교실과 건강검진 등을 함께 진행하며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군수가 직접 관내 무더위 쉼터를 돌면서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으며 관련 공무원들이 함께 동행하며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5일까지 무주읍과 적상, 안성면에 소재해 있는 5개 경로당을 방문했던 황 군수는 "안전하고 시원한 쉼터에서 무더위를 식히고 이야기꽃도 피우시면서 즐겁게 보내셨으면 좋겠다"며 "힘들거리를 날려주는 시원한 바람처럼 여러분의 불편과 위험 요소들을 없애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군은 혹서기 폭염 상황에 취약한 노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관내 경로당 269곳 전체에 에어컨 설치를 완료한 상태며, 주방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경로당 중 가스차단기 설치가 안된 20곳을 대상으로 9월까지 가스 안전차단기도 설치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8일부터 13까지 5박 6일간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여 4개 읍면을 탐방하고 있다.

다 같이 돌아 동네 한바퀴~

진안군,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 실시

진안군은 8일부터 13까지 5박 6일간 관내 초·중·고등학생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를 이용하여 4개 읍면을 탐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 고향 바로알기 역사탐방은 관내 학생들에게 각 지역을 돌며 진안군의 생태자원과 문화를 배우는 지역탐방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써 2011년 시작해 올해로 6회째를 맞는다.

특히 이번 탐방은 부귀, 정천, 주천, 진안읍을 탐방하며 역사와 생활,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우리 고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郷심을 기르는 뜻 깊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또한 5박 6일간의 일정으로 탐방하는 만큼 극한 인내심을 필요로 해 책입감과 상호간의 배려, 협동과 갈등해결과정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을 익혀나가게 된다.

주요 행사 일정으로는 도보와 자전거를 이용한 지역 탐방, 운장산·구봉산 등반, 농가 일손돕기, 요리경연대회, UCC 제작 등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장수 산서면 충효교실 운영

장수군 산서면 유도회(회장 김진철)는 여름방학을 맞아 관내 초중학생 20명을 대상으로 충효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충효교실은 1일부터 8월 12일까지 2주간에 걸쳐 산서초등학교에서 실시되며 한학자 권승선 선생으로부터 사자소학 등의 한자와 전통예절 수업을 받게 된다.

김진철 회장은 "이번 충효교실을 통해 한문실력을 높이고 예절바른 생활습관으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산서면 충효교실은 청소년에게 전통문화와 예절을 익히고 올바른 가치관 확립과 활기차고 보람찬 여름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1995년부터 해마다 운영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무진장소방서, 소방시설 설치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7월20일부터 일반 주택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 주택에 기초소방시설 조기를 설치에 나섰다.

전북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2조제2항에 2017년 2월 4일까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의무설치하도록 돼 있어 일반주택에 거주하는 소방공무원 및 의용소방대원이 941명이 공동구매해 조기를 설치하고 있다.

무진장소방서는 농촌마을 부녀회, 새마을회, 이·통장등에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공동 구매를 요청하면 소방서에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119원스톱 지원센터에서 구매와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무진장소방서 조용주 서장은 "화재를 초기에 발견하고 인명 피해 및 재산피해 경감을 큰 효과를 내는 기초소방시설 설치가 꼭 필요하며, 관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장수=고관호 기자